

경기도 강화, 김포지역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된 몇가지 의견

양돈전문수의사 김준영

최근 경기도 강화, 김포지역에서 연이어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여 텔레비전 뉴스에 중요뉴스로 방송될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신문에도 연일 돼지콜레라 발생사실을 중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언론사는 물론이고 양돈농가들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과연 돼지콜레라를 박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발생을 차단하여 막을 수 있는지 많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경기도 강화, 김포지역 돼지콜레라 발생 역학조사자료(5개 농장 관련된 내용)를 검토해 본 결과와 그동안 본인이 경험하였던 돼지콜레라 증상과 발생양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번 경기도 강화, 김포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은 일부 양축농가의 오염(외부적인 요인에서 유래되었던, 내부적인 요인에서 유래되었던)에서 비롯된 것이 관련도축장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돼지콜레라발생과 확산사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점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 참여를 바랍니다.

1. 양돈농장에서 가축질병(법적 전염병) 인지후 관련도축장 폐쇄 등 행정조치가 더 빨라져야 합니다.

문제점

- ① 이번 경우에 10. 7일 임상수의사에 의해 의사콜레라 결정이 내려지고 관계기관의 진성콜레라 판정까지는 약 하루반나절이 걸렸는데 이 시간동안 다수의 양축농가가 소문을 전해 듣고 도축장에 출하하였다. 그런데 도축장이 이미 돼지콜레라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돼지콜레라가 확산될수 있는 계기가 된 듯 하다는 점이다.

대안

- 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진성콜레라 확진 이더라도 지방 가축위생시험소 확진으로 도축장 폐쇄 등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게 하자. 현재는 해당농장만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도축장은 진성콜레라 판정이후에 행정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질병 전파를 막기위한 이동제한 조치가 시간상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 ② 임상수의사가 의사콜레라 진단을 내린 직후 해당지역 가축방역관과 구두협의후 관련된 도축장의 폐쇄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교육과 법적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장의 임상수의사도 자질이 함양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있어야 도축장을 통한 오염을 최소화 할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2. 도축장 관련 행정조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문제점

- ① 이번 경기도 강화, 김포지역의 경우는 도축장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전파된 사실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도축장 출입시 차량의 수세, 소독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안

- ①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 ② 도축장 방역, 위생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가 필요합니다.

- ③ 자격미달인 도축장은 점진적으로 폐쇄하여야 함.

3. 가축질병 관련 예찰 활동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문제점

- ① 이번 강화지역의 경우 수도작과 양돈일을 겸업하는 농장주의 경우 농번기에 있어 양돈 질병에는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없었습니다.

대안

- ① 가축질병에 취약한 양돈농가를 특별 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예찰활동 강화와 위기관리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양축농가를 방역, 위생관련 등급을 매기고 취약한 농가를 집중적으로 점검, 지도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 공무원을 통한 지도 감독과 민간의 예찰감시기능을 가미하면 관리체계가 가동 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수의사 및 관련 공무원 수의사의 돼지콜레라 관련 학습을 강화하여야 함.

문제점

- ① 돼지콜레라 발생을 경험하지 못한 일선수의사가 많다. 특히 사료회사, 동물약품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수의사들은 대부분 연령이

낮은 관계로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을 현장에서 보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이다.

- ② 돼지콜레라 관련 임상경험이 풍부한 수의사를 통한 돼지콜레라 관련 교육이 시급히 필요함.

사료판매상, 중간상인 등 방문자 조사' 항목으로는 돼지콜레라 잠복기간 및 전과경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대안

5. 대농가 교육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문제점

- ① 양돈농장주 및 종사자가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을 잘 모르고 있다.
- ② 가축질병을 신고하면 불이익이 온다는 인식을 아직도 많은 양축농장주가 가지고 있다.

- ① 위 조항에서 과거 15일 이내 조항을 최소 40일전까지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15일 조항으로는 돼지콜레라와 관련한 역학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이다. 최소 40일전까지 소급해서 조사가 되어야 돼지콜레라 최대 잠복기간과도 부합되고 보다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 수**

대안

- ① 임상경험이 풍부한 수의사를 중심으로 대양축가 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
- ② 이번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홍보하고 양축농가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제도(축산자조금 등)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6. 돼지콜레라 긴급 행동지침의 일부 내용 보완 필요

문제점

- ① 발생장소에서의 방역요령중 1.2.2 역학조사팀 내용중에서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 발생농장의 가축 및 차량의 이동, 수의사,